

Dubai유, 사상 처음 40달러 돌파

석유공사, 오일쇼크 이상으로 치솟아 ... 이라크 정정불안 해소안돼

중동산 Dubai유가 사상 처음으로 40달러대를 넘어서고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도 47달러대를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가 오일쇼크 상황을 방불케 하는 폭등세를 나타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18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는 미국 석유재고 감소발표와 이라크 석유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0.63달러 상승한 배럴당 40.28달러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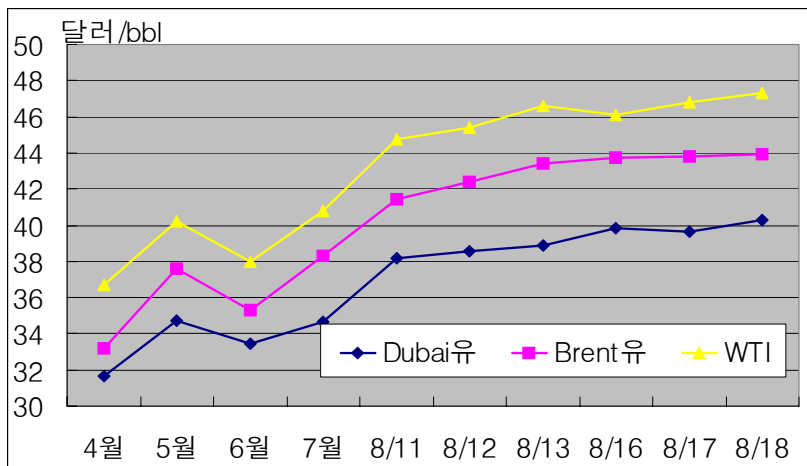
Dubai유가 40달러를 넘어선 것은 현물거래 사상 처음으로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81년 1월29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무기화 선언 이후 39.12달러를 기록한 것이 공시자료는 최고가였다.

Dubai유는 8월 평균이 38.40달러를, 10일 이동평균가격이 38.62달러에 달했으며, 2004년 들어 평균가격은 32.3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격은 47.34달러로 전날보다 0.53달러 오르며 역시 사상 처음으로 47달러 선을 돌파했으며, 북해산 Brent유도 0.13달러 오른 43.90달러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선물가격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9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0.52달러 오른 47.27달러를 기록하며 뉴욕 원유시장에서 선물거래가 시작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47달러 선을 넘어섰다.

국제유가 추이(2004)



석유공사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원유 재고가 지난주보다 130만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라크의 석유수출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라크 사태는 시아파 지도자 알 사드르가 민병대 무장을 해제하고 나자프 지역에서 철수한다는 평화계획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남부지역의 수출이 여전히 평소의 절반수준인 하루 90만배럴에 머물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라크와 베네주엘라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는 40달러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4/08/20>